

유니트론텍, 1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 ▶ KB증권과 자사주 신탁계약 결정... '성장 자신감 표시'
- ▶ 기업가치 이상 무, 매출 성장세 지속될 것

<2018-11-19> 반도체/디스플레이 공급 전문 기업 유니트론텍(142210, 대표 남궁선) 주주가치제고를 목표로 KB증권과 1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6개월 간이다.

이번 자사주 신탁의 배경은 책임경영 의지 표명 및 안정적 주가 관리로 요약되며, 나아가 신사업 확장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 표출로도 해석된다.

유니트론텍 남궁선 대표는 "대내외 경기불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지만, 유니트론텍의 본질적 가치는 이상이 없다"며 "단기적 실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체 경쟁력을 충실히 갖추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유니트론텍은 업황 불황에도 지속적으로 실적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급 사업의 견고한 성장에 IoT 플랫폼 등 신규사업 확대가 더해져, 4분기에도 괄목할 만한 매출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 ▣ 자료문의 : 유니트론텍 최재형 과장 (02-573-6800)
IR큐더스 이진영 수석 (02-6011-2000(#138))